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천국이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It Is from the Lord's Divine Human That Heaven as a Whole and in Part Reflects Man*

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⁷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⁸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15:4-10)

지난주, 스페덴보리 저, ‘천국과 지옥’(Heaven and Its Wonders and Hell) 10장, ‘모든 천사는 온전한 사람 모습이다’(Therefore Every Angel Is in a Complete Human Form)에 이어 오늘은 11장, ‘천국이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It Is from the Lord's Divine Human That Heaven as a Whole and in Part Reflects Man)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빛이 우리를 환히 비추셔서 이 아케이나(arcana, 秘義)가 밝히 이해되도록, 그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자리하도록, 오늘 우리의 영육(靈肉)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볼드체(굵은 글씨)는 원본을 의미합니다.

시작합니다.

78 천국이 전체로나 부분으로나 사람 모습임은 바로 주님의 신적 인성(神의 人性, the Div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ine Human)에서 비롯된다는 이 사실은 앞 장들을 통해 지금까지 서술하고 보여드린 모든 사실의 귀결인데요, 즉

- (1) 천국의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 (2) 천국을 만드는 것은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이다
- (3) 천국은 무수한 공동체들로 이루어지며, 각 공동체는 좀더 작은 형태의 천국이고, 각 천사는 가장 작은 형태의 천국이다
- (4) 모든 천국은 전체적으로 한 사람(*a Single Man*) 모습이다
- (5) 모든 천국 각 공동체들도 한 사람 모습이다
- (6) 그러므로 모든 천사는 완벽한 사람 형태이다

이 모든 내용으로 말미암아 다음과 같은 필연적 결론에 도달하는데, 그것은 천국을 만드는 것은 신성이기 때문에, 천국은 반드시 사람 형태, 사람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성이 주님의 신적 인성이라는 사실은 ‘*Arcana Coelestia*(天界秘義, *Secrets of Heaven*)’에서 수집, 본 장 끝 부록, 하나의 묶음으로 제공한 걸 보시면 더 자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

성인성에서 비롯된다’
성은 신성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 내에서 믿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인성은 신성이 아니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 이런 내용들 또한 위 발췌 부록에서, 그리고 ‘*New Jerusalem and Its Heavenly Doctrine*(새 예루살렘과 그 천적 교리)’라는 제목의 책 끝부분, 주님에 관한 장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은 ‘주님의 신적 인성(神的人性, *the Divine Human*)’이라는 주제와 관련된, 위 묶음 첫 번째 결론 첫 번째 글 요약입니다. 여기서는 이 주제가 어떤 것인지 그 맛만 보여드리고, 나중에 이 주제로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 신성은 잉태되실 때부터 주님 안에 있었다. *The Divine was in the Lord from very conception* (AC.4641, 4963, 5041, 5157, 6716, 10125)

4641 에서(*Esau*)는 주님의 신적 선의 자연적 측면(*the Lord’s Divine good natural*)에 대한 표현인데, 이것이 무엇인지는 어떤 사람도, 그리고 천사 역시도 거의, 아무도 이해할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수가 없습니다. 을 구합니다.

※ 주님은 신(神, *The Devine*)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선은 신적 선(*Divine good*)입니다. 신적 선은 세 종류, 곧 천적(*celestial*), 영적(*spiritual*), 그리고 자연적(*natural*)이 있으며, 여기 ‘에서’는 그 중에서 자연적 선을 표상(表象, *representation*)합니다.

에서로 표현된 이 ‘주님의 신적 선의 자연적 측면’이라는 것은 태어나심으로써 갖게 되신 신성(*what he had Divine from birth*), 즉 신성이 육(肉)을 입으신 것인데요, 그분이 여호와로 잉태되셨기(*he was conceived of Jehovah*) 때문이지요, 그래서 성탄(聖誕)을 통해 그분이 신성한 존재(*the Divine being*)로 소유하신(*had*), 곧 자기의 영혼으로(*as his soul*), 그리고 그 결과 자기의 가장 내적 생명으로(*as the inmost of his life*) 소유하신(*had*)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신적 선의 자연적 측면’(*the Lord’s Divine good natural*)이라는 것입니다.

※ 우리는 그동안 야곱과 달리 에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배워왔기 때문에 에서의 속뜻이 이렇다는 사실이 좀 어리둥절합니다. 주님의 빛

이것을 주님은 어머니로부터 취하신(*took on from the mother*) 것으로 외관상의 옷을 입히셨습니다만 그러나 취하신 그것은 선이 아닌, 그 자체로 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그것을 물리치셨고, 특별히 시험들을 이겨내심으로써 물리치셨습니다. 주님은 스스로 새롭게 하신 이 인성(人性, *the human*)을 이제 성탄을 통해 소유하신 신적 선과 결합 하셨습니다...

※ 주님은 시험을 받으실 수 없는 분입니다. 마귀는 주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보면,

¹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²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³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4:1-3)

주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육(肉)을 입으신 주님이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어머니의 인성, 바로 이것이 악

요15:4-10, HH.78-86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주님에게 나아올 수 있었으며, 주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혹시 나에게 시험이 자주 있다, 내 삶이 형통치도, 평안치도 않다면 그것은 내 안에 마귀를, 악한 영들을 끌어당기는 어떤 악한 요소가 짙게, 강하게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¹⁶항상 기뻐하라 ¹⁷쉬지 말고 기도하라 ¹⁸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살전5:16-18)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다른 분도 아닌 주님이, 그것도 40일 금식이라는 시험 대비, 총력전을 펼치시는 중에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시험이 찾아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불평, 원망,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비하면 완전히 악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귀가 주님 자신을 시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

리에게도 우리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능히 돌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한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이미 우리의 이런 연약함 가운데 있어 본 적 있으신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뒷일은 주님이 수습하십니다. 다음 사도들의 권면과 주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히4:15)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전10:13)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11:28)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79 이것이 사실임을 저는 많은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천국 어느 천사도 신성(*the Divine*)을 사람 형태(*a human form*) 아닌 다른 어떤 걸로 지각조차 할 수 없으며, 놀라운 것은, 더 높은 천국 천사들일수록 신성을 다른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이유, 그 필요성은 그들에게 흘러드는 신성 자체와 천국의 형태에서 옵니다. 그들 사고, 생각의 전개가 이 천국 형태와 조화를 이루며 펼쳐나가기 때문인데, 각각의 천사가 하는 모든 생각이 천국 안으로 확산되어 나가며, 모든 천사는 그 생각의 확장 정도만큼 지성과 지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모두가 주님을 시인하는(*acknowledge the Lord*) 것은 바로 이런 사실의 결과입니다. 오직 그분에게만 신적 인성(*the Divine human*)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걸 저는 천사들한테 들었을 뿐 아니라, 제가 천국의 가장 내적 영향권 안으로 들러 올라갔을 때, 이런 걸 지각할 수 있곤 하였습니다.

이런 사실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천사들이 더 지혜로울수록

이 사실을 더 명확하게 지각한다는 것과, 주님이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도 이 사실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떤 보이는 신적 존재(*a visible Divine being*)를 시인하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신적 천사의 모습(*a Divine angelic form*)으로 보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신적 존재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그들의 신적 존재를 볼 수 있지만 후자는 볼 수 없습니다.

※ 여기서도 철저히 천국은 자신의 역량만큼임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있다고 믿으면 있고, 없다고 믿으면 없고, 이만큼 사모하면 이만큼, 사모함이 거의 없으면 아무것도... 그래서 참 공평, 공정한 것 같습니다.

80 천사들은 그들이 형체 없는 신성이라고 부르는, 보이지 않는 신성은 전혀 지각하지 못하고, 대신 오직 사람 형태의 보이는 신성만 지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 홀로 사람이시며, 자기들이 사람인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음이고, 자기들은 각자 주님을 받아들이는 만큼만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 아주 익숙합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써(*By receiving the Lo*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rd) 그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선
과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게 뭔지
를 이해합니다. 주님은 그분의 선
과 그분의 진리 안에 계시기 때문
인데, 그들은 이것이 지혜와 지성
(*wisdom and intelligence*)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지성과
지혜가 사람을 만드는 것이지, 이
런 것 없는 생김새, 겉모습 얼굴이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다고 합니다.

※ 이 사실로 우리도 주님의 선과
진리 안에 있을 때라야 지혜와 지성
의 사람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
무리 세상 지식으로 가득해도 정작
그 안에 주님으로 말미암음이 없으
면 그는 천국 빛으로 볼 때는 아주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며, 천사들
이 볼 때 그저 까만 덩어리일 뿐입
니다.

안쪽 천국들(*the interior heavens*)
천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실이
맞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에 따른 지혜와 총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가장 완벽
한 사람 모습입니다. 반면, 더 낮
은 천국들(*the lower heavens*) 천사
들은 덜 완벽하고 덜 아름답습니

인성에서 비롯된다’

다. 다른 한편, 지옥에 있는 자들
은 천국 빛으로는 도저히 사람이
라 할 수 없는, 오히려 괴물 같은
모습들인데요, 그들이 선과 진리가
아닌, 악과 거짓 안에 있기 때문이
며, 그 결과, 지혜와 총명하고는
정반대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입
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의 삶(*life*)
은 삶이 아닌, 영적 죽음이라고 합
니다.

81 천국은 전체로나 부분으로
나 주님의 신적 인성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모습이기 때문
에 천사들은 말하기를, 자기들은
주님 안에(*in the Lord*) 있다, 또
일부는 말하기를, 자기들은 그분의
몸 안에(*in his body*) 있다 합니다.
그 의미는, 그들이 그분의 사랑의
선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 친히 다음과 같이 가르
치시는 것입니다.

⁴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
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⁵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
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⁶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⁷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⁸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⁹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¹⁰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15:4-10)

그러나 이런 인사이트(*insight*, 洞察)는 자아-지성(*self-intelligence*)과 악한 삶으로 천국 인플럭스를 거절해 온 모든 사람들 안에서는 소멸되었습니다.

※ ‘자아-지성’(自我, *self-intelligence*), ‘천국과 지옥’을 번역한 김은경 교수는 ‘자아중심적 지성’으로 번역했습니다. 자아 오리엔티드(*oriented*)된, 자아 본위(本位) 지성을 말하며, 그렇다면 참 지성은 오직 주님 본위, 주님 중심, 주님 오리엔티드된 지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지성으로 그걸 소멸해 온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선호하지만, 악한 삶을 통해 소멸해 온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둘 중 어느 쪽도 그런 인사이트가 존재한다는 걸 못 깨닫습니다. 그들에겐 그게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사람의 안으로 기본적으로 흘러들어오는 건 주님의 신성 그 자체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천국을 위해 태어나기 때문이며, 하지만 신성이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해(*a conception of a Divine*)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82 신성에 대한 이런 퍼셉션(*perception*, 知覺)이 천국에는 있기 때문에, 천국 인플럭스(*influx*, 入流)를 받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사람 모습으로 생각하기가 그 안에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그분을 그렇게 생각했고, 현대인들 역시 교회 안팎을 불문, 그분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한 사람들은 상상속에서 그분을 광채나는 마법사 에인션트 원(*the Ancient One*, 전설 속 고대의 마법사)으로 봅니다.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83 이런 이유로 천국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즉 천국이 비롯되는 신성에 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은 사후에 깨어나 천국의 첫 번째 문턱도 넘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천국에 접근하자마자 어떤 저항과 일종의 아주 강한 반발들이 지각됩니다. 천국에 대하여 수용적이어야 할 그의 내면(*interiors*)이 천국 형태가 아니어서 오히려 닫히기 때문인데요, 이 내면은 그가 천국에 더 다가갈수록 아주 더 꼭 닫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들, 소시니아인들 같이 그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 소시니아주의(*Socinianism*)란 16세기와 17세기 폴란드 소 개혁교회안(*the Minor Reformed Church of Poland*)에서 폴란드 형제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파우스토 소치니(*Faustus Socinus*)의 이름을 딴 기독교 교리체계를 말하며, 같은 시기에 트란스베니아 유니테리안 교회에서도 활발하였습니다. 이들은 반삼위일체론자들이며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서 태어나 말씀

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해 무지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의 운명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4 옛사람들이 주님(*the Divine*)을 사람(*human*)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주님이 아브라함, 롯, 여호수아, 기드온, 마노아와 그의 아내 및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장면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한 사람(*a man*)으로 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늘과 땅의 하나님, 여호와라 부르며, 지으신 모든 세계(*the universe*)의 하나님으로 경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분이 주님이셨음을 주님은 요한복음 8장 56절을 통해 친히 가르치십니다.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경우도 그분이셨음을 그분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8:56)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요1:18; 5:37)

85 그러나 걸 사람에 속한 감각적인 걸로 모든 걸 판단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사람이시라는 사실은 거의 이해불가입니다. 감각적인 사람은 주님(*the Divine*)에 대한 생각도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걸로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그는 어떤 천적 영적 인간(*a Divine and spiritual man*)을 생각할 때도 같은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육적 자연적 인간(*a corporeal and natural man*)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론짓기를, 만일 하나님이 사람이시라면 그는 틀림없이 온 우주만큼 크실 것이다, 만일 그분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신다면, 세상 왕들이 하듯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천국에는 이 세상 같은 무슨 공간(*extension of space*)이 없다는 말을 하면 그는 정말 전혀, 하나도 이해하지 못 합니다. 오직 자연과 자연의 빛으로만 생각하는 그로서는 자기 눈 앞에 나타나는 그런 걸로만 생각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

지만 천국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 아주 정말 심각한 실수입니다. 그곳의 공간은 세상의 공간과 다릅니다. 세상의 공간은 정해져 있고, 그래서 측정 가능하지만, 천국의 공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그래서 측정불가입니다. 천국 공간(*extension*)에 관해서는 나중에 영계의 공간(*space*), 시간과 연결해서 더 깊이 다루겠습니다. 부언하여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시력이라는 게 얼마나 멀리 뻗어나가는지, 즉 태양과 별을 넘어 훨씬 저 멀리 뻗어나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고에 속한 내적 시야(*the interior sight*)는 훨씬 더 넓게 확장되며, 그래서 더 깊은 내적 시야(*interior sight*)일수록 훨씬 더 멀리 계속 확장된다는 걸 말이지요. 그러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내적이고, 가장 높은 주님의 시야(*Divine sight*), 신성의 시야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생각, 사고라는 게 이런 확장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의 여러 장에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의 모든 것은 거기 있는 모두와 공유되며, 천국을 만들고 또 가득 채우는 주님 신성의 모든 것 또한 그렇게 공유됩니다.

‘천국이 사람 모습임은 주님의 신적 인성에서 비롯된다’

86 천국에 있는 이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무엇으로, 즉 생각으로도 선뜻 잡히지 않는 어떤 추상적 형태라 여기면서도 스스로를 ‘나는 지성인이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자기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비지성적이요, 단순하다 하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랍니다. 사실은 정반대인데도 말입니다. 그들은 덧붙이기를,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살펴보게 하시지요. 자신들이 자연, 즉 누구는 눈앞에 보이는 자연을, 누구는 자연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천사는, 영은, 사후에도 여전히 사는 그들의 영은,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은, 지성을 구성하는 다른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은 볼 줄 모르는 장님은 아닌지를 말입니다. 반면, 그들이 단순하다 하는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방식, 곧 하나님은 사람 모습으로 계신 신이시며, 천사는 하늘에 사는 사람이고, 그들의 혼은 사후에도 천사들처럼 사는 것이요,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의 삶은 신의 계명을 따

라 사는 것이라는,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천사들은 이들이 지성인이며, 천국에 적합한 자들인 반면, 저들은 비지성, 몰지각, 어리석은 자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신적 인성에 대한 바르고 깊은 이해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오늘까지 칠 주에 걸쳐 주님의 신성과 주님의 인성에 대해 다룬 이유가 바로 그래서입니다. 꼭 여러번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아케이나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이는 저의 초대가 아니라 주님의 초대입니다. 부디 이 초대에 응하셔서 더 이상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읽지 마시고, 천국 천사들처럼 그 본뜻인 천국 뜻으로, 그 속뜻으로 읽어 지상에서도 천사들처럼 주님과 결합하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 여호와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2022-10-16(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